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3. 2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청라관리과
담당	과장 황현동, 도시행정팀장 김한섭, 담당 민창식(032-453-7644)

“청라국제도시 2-③단계 토지개발사업 지적공부 확정 시행” LH 토지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등 가능해져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2-③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토지대장, 지적도,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·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.
- 이번에 확정·시행되는 지적공부는 청라 2-③단계 개발사업 가운데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국제업무단지 및 해변·노을공원 등의 부지이며 미 준공된 하천부지는 제외됐다. 총 686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110필지(1,551,284.1㎡)가 새로 작성·등록됐다.
- 또한, 지목별로는 △‘공원’이 전체면적의 40%(606,922.2㎡)를 차지했고 △‘대’는 29%(455,821.7㎡), △‘도로 등 기타’ 지목은 31%(488,540.2㎡)로 등록됐다. 이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전체면적 17.8㎢ 중 66%인 11.7㎢의 지적공부가 등록 완료됐다.
- 지적공부의 확정·시행으로 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이달 중 2-③단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의 절차를 추진 할 수 있게 됐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.
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이번 지적공부 등록으로 청라 2-③단계 개발사업 내 공원과 도로부지는 국·공유지로 무상 귀속조치 예정”이라며 “국제업무단지 주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확정돼 각종 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